

## 7. 풍성한 삶의 원리: 물맷돌을 들어라!

- 문제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

본문: 사무엘 상 17: 31-40

31.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32.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33.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34.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л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35.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36.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라 같이 되리이다
37.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38.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낫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9.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끈 주머니에 넣고 손에 뭍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지난 해 성지순례에 가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했던 엘라 골짜기에 올라갔습니다. 블레셋이 진치고 있었던 언덕에서 건너편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던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평지에서 골리앗을 앞에 두고 물맷돌을 돌리며 달려갔을 다윗의 모습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당시 물맷돌을 던지는데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던지면 100m에서 200m까지 날아갔다고 하니 그 속도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삼상 17장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끈 주머니에 넣고 손에 뭍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왜 돌을 다섯 개를 주었을까요?

다윗이 실력이 없어서 혹은 믿음이 없어서?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니 물맷돌을 던지는 목동들은 한 번에 돌을 세 개까지 쥐고 연속해서 던지는 기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멀리 있는 표적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34-5절을 보겠습니다.

34.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л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35.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소년 다윗의 나이는 13세에서 15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나이의 소년이 곰과 사자와 맞서 싸웠다면, 칼과 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고 준비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이 '자만심'이 아니라, 준비된 자의 치밀함 그리고 프로근성이 보입니다.

물맷돌 하나를 집었다면 자만심에 빠져 실수할 수도,

물맷돌을 열 개쯤 집었다면 프로로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도 있었을텐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골리앗 앞에서 그가 물맷돌을 집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원리로 '물맷돌을 들어라'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난 주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태도를 넘어서서 '문제를 극복하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모델로 삼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거대한 사람 골리앗을 이긴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삶의 난관을 "골리앗"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윗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물매 돌 다섯 개를 들고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윗처럼 물맷돌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를 흉내 내려는 것이 아니라.

왜 다윗이 물맷돌을 들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

왜 하필이면, 물맷돌이어야 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줄타기 곡에서 Karl Wallenda라는 인물이 몇 년전 푸에르토리코에서 23m 높이의 줄을 타다가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그는 늘 줄타기가 자신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중 곡예사였던 그의 부인의 이야기에 의하며, 그가 죽기 석 달 전부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증언하였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같은 그 줄타기를 하기 전 떨어질 것만 생각 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더니 남편은 줄 위를 걸으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듯했죠."

그의 아내는 몇 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평소에는 일꾼들에게 맡겼던 곡예술의 장치를 몸소 관장하며 버팀줄이 안전한지 철저히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줄타기가 그의 삶의 의미가 되었을 때는 두려움이 앞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은 그에게 불안감을 조성했고, 이제 그는 줄타기를 한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으려고 전력을 쏟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거인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면 패하지 않을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생각해냈던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문제는 피해 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물맷돌을 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오늘 물맷돌을 들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보통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묻겠습니다.

목사와 거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 주는 대로 잘 먹는다
2.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3.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다.
4. 입만 가지고 산다
5. 되기는 힘든데 한 번 하면 끝까지 한다
6. 늘 손에 어떤 것을 들고 다닌다.

그렇습니다. 목사에게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거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문명한 목적이 없으면, 우리의 생활이 거지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그 무엇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존 맥스웰은 목적이라는 영어의 단어 'purpose'의 첫 자를 따서,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할 것이라는 7개의 행동 강령을 이야기 합니다.

Pray - 보통 사람보다 더 기도하게 된다

Unite - 보통 사람보다 더 연합하게 된다.

Risk - 보통 사람보다 더 모험하게 된다.

Plan - 보통 사람보다 더 계획하게 된다.

Observe - 보통 사람보다 더 민감하게 된다.

Sacrifice - 보통 사람보다 더 희생하게 된다.

Expect - 보통 사람보다 더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비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열어놓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으로써 담대히 승리를 주장하도록 도전하고 있습

니다. 예레미야 33: 3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연합하여 일을 할 수 있고,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희생하며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비범한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삼상 17: 45-47에 보면 다윗이 삶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라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만군의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동기입니다. 나의 문제를 통하여 살아가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겠다는 것은 참으로 올바른 동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풍성한 삶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다윗의 삶의 풍성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가 하는 일의 동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의 소리에 분연히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분노로 인해 행동으로 옮기며 '물맷돌'을 드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룩한 일에 분노할 때 충분히 실력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단순한 감정의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 물맷돌을 들 때 치려야 하는 대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선한 동기들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물맷돌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물맷돌을 들 때 우리가 치려야 하는 비용들을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려면 다윗은 두 배로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의 비난이었습니다. 삼상 17: 28에 보면: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는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밟하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등에 있는 몇 양을 뒤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형이었던 엘리압의 비난은 적들의 비난 보다 더 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리고 친구와 골육마저도 다윗의 하는 일을 비웃었을 때 다윗이 느끼는 감정은 아마도 고독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딪치고, 싸워 이기려고 하는 문제의 해결은 아직 우리 앞에 현실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미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하면서 분명한 목적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찬사의 박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으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을 처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찬사의 박수는 나중에 따를 것입니다. 어떠한 비난도 우리의 공격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풍성한 삶의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당당함과 신뢰에서부터 물맷돌을 드는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과 확연하게 다를 것입니다.

나는 지난 주간에 참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마패를 차고온 이도령의 이야기입니다. 춘향이도 만나야 하겠고, 탐관오리도 처치해야 되겠고,

큰 꿈을 안고 찾아온 이 도령에게, 춘향의 어머니 월매는 주걱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도령은 유들유들하게 넘어 갑니다.

번사또에게 창피와 모욕을 당할 때에도, 이도령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아직 내 보이지는 않았지만 마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오늘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그 분명한 '무엇'은 무엇일까요? 본문 37절.

37.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가 나타났고, 양을 지키기 위해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던 그 경험이 다윗에게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숨겨져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마패죠. 아직 드러나지 않아 사람들은 볼 수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드러나게 될 것이빈다.

무엇보다 다윗이 그 감추어진 마패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고 기꺼이 물맷돌을 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도전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원리로 감추어진 그 무엇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물맷돌을 들게 할 테니 말입니다.

거인을 한 번도 처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라는 마패를 소유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골리앗과 정면대결하기로 굳혔다면 비난과 고독의 화살을 예상해야 합니다.

리빙스톤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한 선교 단체의 편지가 그에게 왔습니다. "우리 단체에는 당신이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계신 곳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리빙스톤 박사가 답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만일 좋은 길이 있어야만 오실 분들이라면, 제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람은 길이 전혀 없을지라도 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들이 치러야 하는 댓가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거대한 문제인 골리앗을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냥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더 무서운 적은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회의적(懷疑的)인 말들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싸우겠다고 말했을 때, 사울은 다윗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33절.

33.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얼핏 듣기에는 어린 다윗을 위하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다윗의 사기를 꺾으려는 사단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 싸우려는 이스라엘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소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으니 믿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비전을 선포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

람들은 절대로 동역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풍성한 삶은 우리들이 물맷돌을 들 때, 회의적인 사람들을 동역자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삶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드는 물맷돌은 맹목적인 꿈이나 몽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의 입장에서 다윗의 물맷돌이 얼마나 우스워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전형적인 반응이 사울 왕에게서 나옵니다. 본문 37-39절 말씀.

37.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38.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낫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9.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말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지만, 사울은 자신의 군복과 낫 투구와 갑옷, 그리고 자신의 칼을 주었습니다.

다윗을 믿지 못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믿지 못하니, 그나마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그것을 다윗에게 주어 싸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었을까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창과 칼이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사울왕이 준 것을 사양한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것, 평소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처럼 무모한 것이 없습니다.

‘물맷돌’은 다윗의 무기를 우리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물맷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그 당당함과 확신의 무기!

제가 하는 목회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적용하면 어떨까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청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소리를 구분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함께 헌신할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물맷돌을 드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려 할 때, 주변에서 혼수를 두거나 우리의 사기를

꺼어놓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 적극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신앙은 다르다!

적극적인 사고가 자신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적극적 사고가 사울의 '갑옷과 창'이라면, 적극적인 신앙은 다윗이 들고 있는 '물맷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누구의 갑옷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물맷돌을 들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골리앗 역시 적극적인 사고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믿었고 무기를 믿었으니 말입니다. 사무엘 상 17장 3-7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돌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오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베훈 채 같고 창 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정도의 조건을 갖추고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지 못하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상 17장 45-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라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과 아주 유사하죠. 이렇게 풀어보죠.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할 수 있다" (I can) - 적극적인 사고입니다.

바울은 "행 할 수 있다" (I can do) -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all things) - 이것은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어떤 것 (I can do some things) 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우리의 주님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through Him** 이것이 신앙입니다.

풍성한 삶을 위해 우리가 물맷돌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맷돌을 들어 신앙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상은 겁이 많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증명되지 않으면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 상 17장 51-2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라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라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골리앗이 쓰러질 때까지, 물맷돌이 다윗의 손을 떠나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들이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숨어있던 자들과 다윗을 조롱하던 자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것을 ‘풍성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예가 될 듯합니다.

\* 1954년 까지만 해도 인간이 4분 이내에 1마일 이상을 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저 배니스터라는 젊은 사람이 이것을 깨 버리자, 54-56년 사이에 213명의 사람이 이 기록을 주파했습니다.

\* 1900년 초에 높이뛰기 7피트 (2.133m)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Fosbury라는 한 사나이가 나타나, 발이 아니라 머리 쪽을 뒤로하여 넘어야 한다는 이론을 이야기 할 때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새로운 방법으로 뛰어 넘은 후 이제는 2.4m 이상을 넘는 선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교수가 고급 박사과정 수학수업 시간에 풀리지 않은 문제 하나를 칠판에 적었다. 수학자들은 수년간 이 문제 풀이를 시도해온 터였다. 그 교수는 학생들에게 답을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 교수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이 문제는 풀리지 않지만, 그러나 한 시간 동안 이것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문제를 제시한지 5분이 지나서 입실한 학생 한명이 있었다. 그 지각생은 자리에 앉았고, 칠판 위의 문제를 보고 풀기 시작하더니만 결국 풀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은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라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문제 해결의 첫 열쇠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열매맺는 지도자, p133>

우리가 거인을 넘어뜨리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기에서 사도바울의 고백이 생각 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9절.

우리가 사방으로 옥여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